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Vol. 102
2026 여름호



제26권 2호 통권 102호



Contents



| 표지 사진

2·28민주운동 66주년 기념 제4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가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개최되었다.
대상 수상팀인 BOOM의 모습 (2026년 5월 23일)



회원가입

- 2 **특집기사**
청소년의 열정과 끼,
2·28기념중앙공원을 물들이다
- 16 **청년의 목소리**
바람직한 역사 인식과 대외정책 인식에 관한 제언-
안재홍
- 27 **대구 10월 항쟁. I**
해방 직후의 격변과 1946년 10월 항쟁-김상숙
- 34 담임 선생님을 늘리자-조두진
- 41 대구의 수호신 연구산 돌거북-이정웅
- 50 무대 밖으로 걸어 나간다는 것-황규진
- 58 <창작오페라 2.28> 관람 후기-윤종국
- 64 **인문학의 향기**
내 인생의 저녁-허창욱, 발바닥-김육진
- 68 **2·28 주요소식**
- 2·28민주운동 헌법전문 수록 관련 원로 자문 간담회 개최
- 대구시장 후보 초청 2·28정책 간담회
- 2·28정신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잇다
- 대외협력위원회 위촉식
- 2·28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 민주주의를 향한 용기, 국가유공자로 기록되다
- 2·28민주도서관,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 2·28민주운동 발자취 따라, 2·28위원회 교육·현장 탐방 실시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방문 잇따라
- 88 **정정보도**
바로잡습니다-조해정(실록2·28 집필자)

2·28회원님들이 2·28의 큰 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며, 대구·경북의 자랑스러운 정신인 2·28을 널리 알리고 이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2·28과 함께 하는 회원님들의 뜻과 정성은 2·28정신 선양과 계승에 큰 힘이 됩니다.

- 연 회 비 정회원 30,000원 이상 / 후원회원 개인 100,000원, 단체 1,000,000원 이상입니다.
- 계좌번호 농협 301-0248-9904-81 / 대구은행 505-10-139462-2
- 예 금 주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본 법인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거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비 제외)

청소년의 열정과 끼, 2·28기념중앙공원을 물들이다

「2·28민주운동 66주년 기념 제4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본선 성황리 개최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 23일 2·28기념중앙공원에서 「2·28민주운동 66주년 기념 제4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본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음악과 춤으로 열정과 재능을 펼친 이날 행사는 시민과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 속 문화축제로 진행됐다.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민주·자유·참여 정신을 미래세대와 공유하고,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무대 경험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단위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 참가 접수에 전국 249개 팀, 총 759명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후 5월 8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예선을 거쳐 가요·댄스 부문별 본선 진출 10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팀 '충격'의 보컬 이가은의 애국가 제창 모습

이날 행사는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애국가 제창은 지난해 제3회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 대상 수상팀인 '충격'의 보컬멤버 이가은이 무반주로 애국가를 제창하며 의미를 더했다.



팻볼 광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의 개회사



팻볼 여행웅 2·28원로자문회의 의장의 축사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의 개회사와 여행웅 2·28원로자문회의 의장, 백채경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축포와 LED 영상, 음향이 어우러진 개회선언 퍼포먼스가 펼쳐져 현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백채경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의 축사



개막 퍼포먼스 모습

본선 경연은 GAHS(가스)를 시작으로 이가예, PINE(파인), CB크루, 박경미, PULSE(펄스), 서주아, BOOM(붐), 황인경, 나타라자브이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K-POP 댄스와 스트릿댄스, 보컬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저마다의 개성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무대마다 이어진 관람객들의 환호와 응원은 청소년들의 열정과 어우러져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헛불 팀 GAHS(가스, 대구)



헛불 이가예(구미)



햇불 팀 PINE(파인, 대구)



햇불 팀 CB크루(경기)



햇빛 박경미(서울)



햇빛 팀 PULSE(펄스, 대구)





햇살 서주아(대전)



햇살 팀 BOOM(봄, 경기)



황인경(대구)



햇볼 팀 나타라자브이(부산)

특히 서울·부산·대전·경기·경북·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대를 꾸미며 단순한 경연을 넘어 문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무대를 응원하고 실력을 공유하며 건강한 경쟁 속에서 성장의 경험을 쌓았다.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심사단 30명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문 심사위원 평가 70%와 시민심사단 평가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직접 청소년들의 무대를 평가함으로써 공정성과 참여의 가치를 높였다.



본선 심사를 진행 중인 심사위원단(왼쪽부터 장미영, 위나, 윤성재, Barostar)

행사 중반에는 중간 순위 발표가 진행돼 현장 긴장감을 더했으며, 후반부에는 심사위원장 장미영의 총평이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전했다.



대상은 경기 지역 댄스팀 BOOM(경기)이 차지했다. 금상은 나타라자브이(부산)와 황인경(대구), 은상은 PULSE(대구)와 박경미(서울)가 수상했으며, 동상은 GAHS(대구), 이가예(경북), CB크루(경기), PINE(대구), 서주아(대전) 등 총 5개 팀에게 돌아갔다.



수상팀에게는 대상 500만 원, 금상 각 150만 원, 은상 각 50만 원, 동상 각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대상 수상팀 BOOM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와 뛰어난 팀워크를 바탕으로 심사위원과 시민심사단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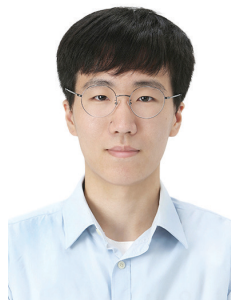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재능과 열정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2·28민주운동 정신을 기반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청소년 댄스&가요제는 2·28민주운동 정신을 청소년 문화예술과 연결하는 대표 참여형 행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매년 전국 청소년들의 끼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문화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수상명	구분
대상	[댄스] BOOM(경기)
금상	[가요] 황인경(대구), [댄스] 나타라자브이(부산)
은상	[가요] 박경미(서울), [댄스] PULSE(대구)
동상	[가요] GAHS(대구), PINE(대구), 서주아(대전), [댄스] 이가예(구미), CB크루(경기)



바람직한 역사 인식과 대외정책 인식에 관한 제언



안재홍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외정책”은 주요 정치 담론 중 하나로써 다루어지는데, 정치인들은 국력에 맞는 적절한 담론을 주도하고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현재 한국은 방산업, 화장품과 같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겸비한 선진국의 위상을 다져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아직 선진국의 정치인다운 건설적인 대외정책 담론을 이끌어 나갈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24년 4월 총선 유세 시기,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만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양안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친중 사대주의”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작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사대주의”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대”라는 표현은 본래 큰 나라를 섬기고 작은 나라는 사랑으로 대한다는 춘추의 “사대자소(事大字小)”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본연의 의미는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대국을 향한 소국의 저자세 외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외정책 인식을 “사대주의”라는 표현으로 공격한 것인데, 본인들이 미국에 “사대외교”를 전개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은 미국이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제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 때 파병을 통해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좌절시킨 미국과의 동맹을 건국 강령처럼 금과옥조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 시기 원군을 파견한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조선 관료들의 “재조지은” 의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재조지은” 의식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당시 지배층들은 최선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전제에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재조지은”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 당을 “사대주의”라고 비난하는 모순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병자호란 시기 조선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긴밀한 관계의 기존 강대국이 쇠퇴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새로운 강대국에 접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했다는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를 현재 상황에 대입하면, 한국은 중국과 헤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현재 자세는 G2 시대 도래라는 국제정세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이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한국 중시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하여 서태평양의 국가들과 안보 동맹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시기인 20세기 초에는 가쓰라-태프트 조약을 통하여 일본의 식민지배를 용인하는, 우리에게 비극을 안겨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애초에 북한이라는, 우리의 현재적인 최대 안보 위협인 국가가 탄생한 것은 미국의 소련과의 타협으로 한반도를 분단한 결과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미군 주둔을 통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 확보라는 안보적 이익을 얻는 한편, 미국도 대중국 전략에서의 이익을 얻으며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하여 금융,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 곧, 동맹은 한 쪽에만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와 구조가 아니다. 아무리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의 위신과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것까지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작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최근 스타벅스의 5.18 비하 성격의 마케팅 사건에 대해서도 두 기업이 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를 들며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한-미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였다. 또한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압송 사건 때는 마냥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마치 미국이 한국의 내정에도 개입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황당무계한 성명을 내놓았다.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어떤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인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친미, 사대가 아니라 거의 종미(從美)에 가까운 행보이다.



국민의힘 대표는 지방선거 준비에 전념해야 할 시기인 2026년 4월 미국을 방문하였다. 아무런 명분도 없었던 방문을 강행한 것은 민주당 정부가 한-미 관계를 소홀히 한다는 여론을 확산하려는 시도였다고 해석된다. 이념이 크게 실종한 한국 정치 판도에서도 양대 정당이 선명한 대립을 영역이 외교, 안보정책이라고 여겨지는데, 냉전 시대 유대를 바탕으로 한 서방 편중 노선을 견지해 온 보수정당으로서는 중국, 러시아와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추구하는 균형 외교를 중시해 온 민주당계 정당을 공격하는 정쟁에 매몰된 듯한데, 그러한 나머지 진정한 국익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착잡하다.



또한 국민의힘 대표는 나무호가 공격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지원 요청을 회피할 수 없는 명분이 생겼다고 해석하며, 일찍 요청을 수락해야 했다는 식의 비난을 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동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의 이익마저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필요는 없는 것이다. 동맹 관계는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한국에서 보수라고 자칭하는 정치 세력의 언행을 보면, 한국은 미국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나라인 듯한 인상을 받는다. 동맹국은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국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대등한 관계를 수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거절할 때는 당당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국의 미국 편향 외교는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위험 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외정책 노선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한국은 전략적 균형 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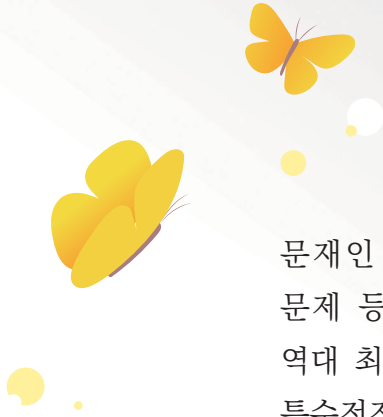
한편, 국민의힘의 대일본 정책도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강경 정책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서 협력하는 일본과의 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난해 왔다. 그런데 정작 국익을 훼손한 것은 본인들이었다. 2023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경한 경고의 입장을 표명하지도 못하였다. 심지어 본인들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는데, 2년 후 여야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 낱아 빠진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결국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정한 보수라면 국가의 법통성과 역사 정신을 존중하는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선포하고 있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항일 독립운동의 중추였다. 식민 지배 역사를 겸허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일본의 불치병적인 자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일본에 유화적인, 더 나아가서는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였다. 일본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자국의 정당한 영토 수호 활동을 포기한 것은 위험에 가까울 정도의 중대한 과오이다. 사실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자, 역대 최대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해군 특수전전단(UPT)과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병력이 독도에 투입되었으며, 훈련의 명칭도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영토 수호훈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자 가상 모의 훈련으로 대체되었고 비공개 조치했다. 이러한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독도 수호 의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할 우려가 있다.



나는 일본을 우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타국의 정당한 영토, 영유권 행사를 존중하지 않고 침탈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 정부의 외무부 문서를 검토한 나로서는 일본을 ‘우방’으로 지칭한 부분을 볼 때마다 거부감이 들었다. 더 나아가 일본과의 관계를 안보 협력 관계로 설정하려는 행위도 환영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신뢰를 형성할 수 없는 국가와 자국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안보에서 진정한 협력을 전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는 순리를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현상을 변경할 의향이 없는 국가이지만, 일본은 현상 변경의 의향이 있는 국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꾸준히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탈피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기시다, 이시바, 다카이치 내각을 거치며 하나의 전장 구상 발표, 필리핀과 같이 중국 견제에서 이해가 일치하는 국가와의 군사 협력 심화를 통해 서태평양 안보 환경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 중 센카쿠 열도는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중화민국) 3개국이 관여되어 있는 도서인데, 현재 대만 측의 영유권 요구는 매우 수그러들어 거의 식별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일본의 협력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갈등을 유발할 만한 사안인 센카쿠 열도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비하여 안보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해 왔고, 라이칭더 총통은 작년 10월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으로 인해 고조된 중-일 간 긴장 시기에도 일본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등, 대만은 완전히 일본에 경사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대만의 행보는 일본이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 거칠게 추측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게 안보 이익 강조는 영유권이나 역사 인식 문제 등 자신들이 꺾끄럽게 여기는 부분을 덮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여 대만 측의 사실상 센카쿠 열도 영유권 포기를 이끌어낸 것처럼,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은근히 잠식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센카쿠 영토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일본은 결코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나라이다. 최근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자주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이제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파워 어느 면에서도 일본에게 뒤처지지 않는다. 1인당 GDP는 근소한 차이로 추월하였고 무기 능력 면에서도 한국의 우수성은 방위산업 협력을 요청하는 나라들의 수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더욱더 일본에게 당당한 외교를 전개할 만한 역량을 갖춘 상황이다. 일본의 야욕을 꺾어내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할 후과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괜히 일본의 영토리 주장에 대항하면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는 형국이 되므로 조용히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안일한 판단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교를 불사하는 마음으로 일본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독도 영유권에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공공외교 등을 적극 전개하는 것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영토를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라는 것을 정치권이 꼭 유념해주기를 바란다. 

대구 10월 항쟁. I

해방 직후의 격변과 1946년 10월 항쟁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배고파 못 살겠다, ‘살을 달라!’”

1946년 10월 1일 오전, 대구부청 앞에서는 여성과 어린이가 중심이 된 시민 1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대구역 광장에서는 남조선총파업 대구시투쟁위원회(이하 대구시투) 주도로 ‘전매국노조의 쟁의 지원 시민궐기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파업 노동자와 시민 6천여 명이 모여 집회가 끝난 뒤에도 해산하지 않고 경찰과 대치했다. 당시 경찰은 친일인사가 대부분이어서 시민들의 증오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시민과 무장경찰이 대치하게 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며, 결국, 위기의식을 느낀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또 다른 노동자 1명은 중상을 입고 도립의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숨졌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미 24군단 사령부에서 작성한 문서(1946.10.24.)에는 “1946년 10월 1일 (대구)역 앞에서 시위 중 경찰이 시위자에게 발포해 2명이 죽었다. 이 중 노조 지도자 이상익은 복부에 총을 맞고 10월 3일 병원에서 숨졌다. 또 다른 신원미상자 한 명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해

〈약력〉 김 상 숙

사회학박사(경북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10월항쟁』, 『대구의 5·18, 두레양서조합사건』 저자, 제10회 임종국상(학술부문) 수상

영안실에 안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시위현장에 있었던 철도노조원 유병화는 동료 노조원 김용태가 경찰의 발포로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증언했다. 사건이 수습된 뒤, 1946년 11월 13일 대구부 후생과에서 발표한 민간인 피살자 명단에도 ‘김용태(27· 역수 驛手)’라는 이름이 있어 유병화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1946년 10월 2일 아침부터 대구의과대학에서 최무학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전날 사망한 김용태의 시신을 들것에 메고 교정을 돌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학생 시위대는 중학생들까지 합세해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오전 10시경, 시위대가 대구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는 시민들도 합세했다. 1만5천여 명으로 불어난 시위 군중은 대구경찰서 정문에서 무장경찰과 대치하며 “살인 경찰관을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비슷한 시각, 대구역 앞에는 파업 노동자 수천 명이 아침부터 집결해 있었다. 경찰은 경상북도 5관구 경찰청 특경대 등이 동원되면서 전날의 2배로 불어나 있었다. 노동자들이 경찰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지며 대치하던 중, 경찰의 발포가 있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소에서 공개한 당시 사진에는 거리 한쪽에 장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엄폐물 뒤에 쪼그려 앉아있고 반대편으로 피신한 시위 군중 쪽에는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또한, 시신 사진에는 24번까지 번호를 매겨져 있어 적어도 24명이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구경찰서 앞에는 학생·시민 시위대가 연좌하고 있었고 시위대 대표단이 ‘구금자 석방’, ‘경찰의 무장해제’, ‘폭력으로 시위 진압을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당시 미군정의 프레이저 소좌는 이성옥 대구경찰서장에게 무력으로 군중을 해산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일부 경찰이 시위대에 동조하고 대구역에서 유혈사태까지 일어나자, 이성옥 서장은 총기를 무기고에 넣고 인근의 본정소학교(지금의 종로초등학교)로 경찰을 철수시켰다. 이에 따라 시위대는 대구경찰서로 들어가 유치장 문을 열고 구속자 100여 명을 석방했다.

10월 2일 오후 1시경, 대구경찰서가 점령됐다는 소식이 퍼지자 대구 시내 곳곳에서 빈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군중은 경찰서 지서와 사택을 공격하고 경찰과 우익인사, 군정관리 30여 명을 살해했다. 일부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자치회를 만들어 질서를 잡고 관리와 부유한 인사들의 집에서 가져온 물품을 빈민에게 배급하기도 했다.

10월 2일 오후 3시, 미군이 장갑차와 기관총 부대를 앞세워 대구 시내로 들어왔다. 오후 5시에는 미군정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충청도 등 다른 지방에서 온 경찰도 투입됐다. 그들은 5명씩 조를 짜 길거리나 민가를 수색하며 눈에 띄는 청장년 남성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특히 미군정 반대자가 많았던 남산국민학교 인근 마을, 덕산국민학교 윗마을, 자갈마당 주위 마을 등을 주로 수색해 청년들을 연행했으며, 연행한 사람들은 경찰서나 수창국민학교 운동장 등에 수용했고 이에 불응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사살했다.

대구에서 밀려난 시위대는 시 외곽으로 나가 경북 각 군의 농민들과 합세했다. 10월 항쟁 이전부터 농촌의 농민들은 미군정의 식량 공출 문제뿐 아니라, 토지개혁 지연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 22개 군에서 항쟁이 일어났으며, 칠곡, 영천 등 몇몇 지역에서는 대구보다 훨씬 더 항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 지역들도 미군정이 이미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였으므로 진압 또한 훨씬 강경했고 이 과정에 학살된 민간인도 많았다. 선산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의 주도로 봉기가 일어났다. 박상희는 일제강점기에는 좌우합작 항일단체인 신간회 선산지회 간부였고 해방 후 인민위원회 간부였다. 그는 1946년 10월 3일, 2천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구미경찰서를 습격해 협상으로 경찰들을 철수시켰다. 그리고 경찰서 간판을 떼어낸 뒤 선산인민위원회 보안서 간판을 내걸고 서장을 비롯한 경찰관들과 우익정당 요인들을 유치장에 가뒀다. 선산군의 항쟁은 10월 6일 대구에서 온 경기도 경찰부대에 의해 진압됐다. 박상희를 비롯한 주동자 3명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살됐다. 경북의 항쟁은 10월 6일경 대부분 진압됐다. 그러나 항쟁은 전국으로 번져 12월 중순까지 계속되어 동학농민운동이나 3·1운동에 버금갈 정도의 규모로 일어났다.



1946년 10월 항쟁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여러 설명이 있다.

첫째, 당시 미군정과 사회운동세력의 관계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국내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있었으나, 미군정은 친일지주와 자본가, 미국 유학파 지식인들이 만든 정당인 한국민주당과 친미계 반공 인사인 이승만 등 일부 세력을 선별해 통치 기반을 형성했다. 그리고 임시정부 세력이나 중도·좌파세력이 주도하던 민중 자치조직인 인민위원회 등 나머지 세력은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더구나 미군정은 1946년 5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좌익세력 탄압을 강화했다. 이에 미군정 협조노선을 취하고 있던 조선공산당은 좀 더 공세적인 ‘신 전술’을 채택했다. 당시 대구의 사회운동세력들은 미군정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9월 들어 대구에서도 좌익인사 검거가 시작되자 미군정과 좌익세력의 충돌 조짐이 나타났다.

둘째, 당시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정이 식량 공출을 가혹하게 했던 것도 원인이 됐다. 미군정청은 군정 초기에는 자유곡가제를 시행하다가 쌀의 매점매석이 심해지자 1946년 1월부터 공정가격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사정이 호전되지 않자 2월에는 <미곡수집령>을 발표하고 쌀 강제수집과 제한 배급정책을 시행했으며 춘궁기에 하곡까지 수집했다. 게다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5월에 콜레라가 창궐하고 6월에 수해까지 있었다. 식량부족 사태가 악화하자, 청송 등 경북 산간지역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양곡 수집을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했으며, 당시 경북에서는 하곡 수집이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시행됐다.

셋째, 해방 직후부터 대구·경북에는 귀환동포 30만 명이 유입되어 인구가 급증했으나 미군정이 대책을 세우지 않는 바람에 1946년 봄부터 자살자가 늘어나고 실업·범죄 등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대했다. 귀환동포가 “내부 난민화”한 것은 10월 2일 오후 대구에서 봉기가 격렬하게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농민들의 경우 토지개혁이 지연되면서 소작 갈등이 심해졌는데, 특히 영천처럼 논농사 소작률이 높은 지역은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 봉기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넷째, 친일 경찰을 향한 증오심도 주요한 원인이 됐다.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에 일했던 한국인 관리 대부분을 등용해 경상북도와 대구부에는 국·과장급 대다수가 일제 관료 출신이었다. 경찰의 경우, 일제 말기의 한국인 경찰관 대부분이 미군정에 다시 임용됐다. 일제의 유산을 물려받은 경찰은 비민주적인 수사 관행과 인권 탄압 행위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다섯째, 10월 항쟁은 빈민 시위와 농민 시위, 노동자 파업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 빈민들은 1946년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단위로 부청이나 도청에 몰려가 식량 배급을 요구했다. 경북 농촌에서는 1946년 한 해 동안 1,552건의 소작 쟁의가 있었고, 식량 공출 반대 시위와 봉기가 있었다. 한편,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뒤 미군정은 좌파를 포함한 건국운동 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자, 1946년 9월 23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주도로 9월 총파업이 일어났다. 대구·경북에서도 30여 개 업체의 노동자 5천여 명이 파업을 벌였다. 9월 말에 서울의 파업은 진압됐으나, 대구에서는 파업이 확대됐다.



항쟁은 민간인과 군경 양측의 피해를 낳았다. 상황이 일단락된 뒤 경북에서만 8천여 명이 시위 가담 혐의로 검거되어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리고 민간인 상당수가 재판 없이 불법적으로 학살됐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도 민간인들이 항쟁 관련자라는 이유로 학살됐다. 항쟁 관련자들은 1949년 말부터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뒤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도 집단 학살됐다.

1946년 10월 항쟁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누적된 갈등과 해방 직후 자주적인 건국운동의 좌절에 대한 반발이 미군정의 실정을 계기로 나타난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 4·3사건, 여순사건과 함께 민간인 학살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항쟁 후 항쟁 참여자들은 군경의 탄압을 피해 팔공산, 지리산, 태백산 등으로 들어가 야산대(野山隊)를 형성했다. 야산대가 발전한 유격대는 군경과 대치했으며, 군경이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 수많은 민간인이 함께 학살됐다. 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 시기에도 이어졌고, 이러한 학살은 건국운동의 주축이었던 지역 진보세력의 배제와 절멸 과정이 됐다.

1946년 10월 항쟁은 현대 한국사회의 틀이 형성되던 초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며 전후 냉전 통치성 구축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항쟁 이전에 각 지역사회에는 애국세력과 친일세력의 구분만 있을 뿐, 좌익과 우익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항쟁 후 우익세력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마을공동체 단위까지 하부조직을 형성하고 권력을 장악했으며, 이승만 정권은 이를 토대로 국가권력을 하향적으로 이식했다. 그리고 생존한 지역민들에게는 패배와 학살의 공포가 이 세대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형성했다. 이 트라우마는 전쟁 후 한국사회 전반에 ‘반공=빨갱이 혐오’의 사회심리 구조를 형성해 냉전 통치성을 구축하는 토대가 됐다. 이 세대의 집단적 트라우마는 나중에 대구·경북 지역이 보수화된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참고 문헌

- 김상숙, 2016, 『10월 항쟁 : 1946년 10월 대구 봉인된 시간 속으로』, 돌베개
 김상숙 외, 2019, 『한국현대사와 국가폭력』, 푸른역사
 브루스 커밍스, 김자동 역, 1986,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제4대 국회, 1960,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정영진, 1990, 『폭풍의 10월』, 한길사
 정해구, 1988, 『10월 인민항쟁 연구』, 열음사
 주한미군, 1948, 『The Quasi-Revolt of October 1946』, 『주한미군사』[돌베개 간행 영인본(198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권

HQ. 99th M.G. Gp. 1946/10/01~1946/10/05

HQ. 6th Division, 1946, G-2 Summary of Kyongsang, Kyongsang Communist Uprising of October, 1946(1946/12/01)

대구10월항쟁.Ⅱ : 농촌으로 간 10월 항쟁과 분단체제 반대운동

대구10월항쟁.Ⅲ :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로 이어진 10월 항쟁

담임 선생님을 늘리자



조두진

(2·28 햇불지 편집위원·매일신문 논설위원)

6·3지방선거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각종 현금 지원성 공약을 쏟아냈다. 입학 준비금·교통비·사회 진출 지원금·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등 명목이었다. 현금·바우처·적립형 펀드 등 형태가 조금씩 달랐을 뿐, ‘돈을 줄 테니, 표를 달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었다. 전국적으로 ‘돈 풀기’가 기승을 부렸지만, 그나마 주요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그런 공약을 내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고 고맙다.

돈 선거로 흐르는 배경

교육감 선거가 ‘돈 선거’로 흐른 배경으로 ▷교육감 후보는 소속 정당이 없다보니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어렵고, 조직이 없으니 지지층을 결집하기 어렵다는 점 ▷학령인구는 줄어들었지만, 교육재정은 늘어나는 일종의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이월·불용액이 넘친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명색 대한민국

〈약력〉조두진

장편소설 《도모유기》, 《능소화》, 《유이화》, 《아버지의 오토바이》, 《몽혼》, 《북성로의 밤》, 《결혼면허》, 《조선 선비 콕주의 부부싸움》, 《미인1941》 외, 소설집 《마라토너의 흡연》, 《진실한 고백》, 《365번째 편지》 한겨레문학상, 금복문화상(문학) 수상. 매일신문 논설위원(현)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감 후보들이 공교육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고민과 노력은 뒷전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표만 얻으면 된다는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줄 모르고, 돈을 주면 표를 주는 국민들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예산은 늘고 학생은 줄고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정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稅收)가 늘어나면서 교부금은 2016년 43조 원에서 작년 70조원, 올해 76조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은 596만 명에서 492만 명으로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긴 액수가 2023년 8조 6천334억 원, 2024년 5조 6천334억 원이었다.

겉보기에는 경제성장에 따라 교부금은 늘어나는데, 학생은 줄어드는 것이 교부금이 남아도는 원인처럼 비친다. 하지만 본질은 시대 변화와 우리나라 미래상에 맞는 교육을 등한시하고, ‘하던 대로 해온’ 관성적 교육 정책 탓이라고 생각한다. ‘남는 돈 풀 궁리’가 아니라 ‘새로운 교육 정책 만들기’에 집중한다면 예산이 남아돌기는커녕 빠듯하다고 느껴질 것이다.

교육교부금 줄이자는 의견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 학령인구 감소에 맞게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자고 한다. 간단히 말해 교부금을 줄이자는 것이다. 대학교육·평생교육을 비롯해 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연구 분야는 예산이 부족해 찢찢 매는데 공간이 넘치는 교육청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돈 선거나 펼치고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교부금부터 줄이기보다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견제 감시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풍족한 예산을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교실, 더 나은 교육 구조를 만드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반 담임 선생님 늘리자

더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 먼저 교실 구조, 즉 현재 초·중·고 각 반의 담임 선생님 배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 가령, 현재 초등학교는 각 반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이다. 학교별 학년별로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담임 선생님이 주요 교과(국어, 수학, 사회, 도덕 등)를 지도하고,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행정업무까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어, 체육, 음악, 미술 등은 전담 교사가 여러 학급을 돌며 가르치는 구조이다. 최근에는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진로 상담 및 교육 업무까지 떠맡겼다. 학생 개별 맞춤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이겠지만, 선생님들이 무슨 슈퍼맨인가? 지쳐서 종일 찡그리거나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학생들의 막무가내 요구와 학부모 민원은 또 얼마나 많은가.

취미·재능 전담 담임 선생님

과거에는 체육, 음악, 미술 등도 담임 선생님이 지도했다. 하지만 분야별 전문성이 강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전문 과목 선생님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를 이어받아 각 교실에 두 분 또는 세 분의 담임 선생님을 배치해서 한 분은 지금처럼 주요교과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한 분은 학생 상담 및 학생의 취미·재능 등을 계발(啓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진로 및 직업 상담 선생님을 배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 가정사까지 터놓고 대화하자면 학생들과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 학생들을 늘 관찰하는 담임 선생님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로 학교에 몇 명의 진로 상담 선생님이시라는 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왜 농땡이 칠까

교실에 담임 선생님을 두 분 또는 세 분 배치하면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찰과 상담, 지도에 따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로 성장하고, 다른 재능이 있는 학생은 해당 분야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 약한 학생들이 왜 다른 과목에서도 약할까?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다른 주요 교과목만큼 선생님의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하나의 거대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크게 칭찬 받지 못하는 과목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선생님의 반응이 사회 일반의 반응으로 와 닿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범죄와 타락 예방도 효과

학생 상담과 취미·재능 등 장점 계발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하면 어린 학생에게는 엄청난 빛이 될 수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학생들을 생활지도 선생님이 인도(引導)하면 범죄나 위험, 타락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 옆길로 빠지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또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담임 선생님 숫자를 늘려서 범죄와 타락으로부터 학생을 구할 수 있다면, 한 개인을 불행에서 구출하는 가장 인간적인 교육 사업인 동시에 범죄와 타락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덧붙여 현재 선생님들에게 과중하게 주어진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붕어빵이 할 수 있는 일?

학교가 붕어빵처럼 졸업생을 찍어내는 구조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경쟁력을 향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말로는 ‘각자의 재능과 꿈을 키우자’고 하지만, 학생의 개별적 재능에 관한한 각 가정의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교가 학생 저마다의 창의성과 장점을 발휘하도록 돕자면 담임 선생님 숫자를 늘려야 한다.

1개 반에 담임 선생님 두 분 또는 세 분 배치는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 설령 현재 5천만 명 인구가 4천만 명으로 줄더라도, 그 4천만 명 대부분이 확실한 자기 분야 일을 갖고 자기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라. 국내 총생산은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늘어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가 아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그들 모두가 손에 삽을 들고 종일 땅을 판다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4천만, 3천만으로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국민 다수가 어떤 성격의 일,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달라진다. 각 반에 담임 선생님 3명을 배치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은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얻을 이익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일 것이다.



학생에게 격려와 용기를!

신경정신과 의사, 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10대 이하 학생들은 ‘부정적인 충고 또는 훈육’에 좀처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 가령, “너는 왜 종일 설쳐 대느냐. 좀 조용히 앉아 있어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그 학생이 잠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을 포착해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니 참 의젓하고 멋있다”고 칭찬하면 점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한다. 충고나 잔소리보다 칭찬에 훨씬 잘 반응한다는 것이다.

IQ와 무관하게 선생님의 더 많은 관심을 받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 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로젠탈 효과·1964년 미국) 이 실험에 따르면 선생님의 말 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눈빛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너는 왜 공부를 이렇게 못하니”라고 하는 말보다 “이 복잡한 설명에 집중하다니, 대단하구나”라고 칭찬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오른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에게 에너지를!

로젠탈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면 더 열성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 한 마디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신을 좋게 보고 있음을 알게 되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다.

학급 당 담임 선생님 숫자를 늘려서, 선생님들에게 여유와 에너지를 드리고, 그 긍정적 에너지를 학생들에게 듬뿍 뿜어 주시도록 하자. 6·3 지방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게 된 전국 교육감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논의에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 

대구의 수호신 연구산 돌거북

福

이정웅 (전, 달구벌 얼 찾는 모임 대표)

대구시 중구 명륜로 23길 16에 있는 제일중학교 자리가 옛날 산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1945년 4월 20일 일제강점기 제일중학교의 전신인 대구여자상업학교가 개교하기 전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던 산이었다.

이름도 다양해 월견산(月見山)이라 부르기도 하고, 오포산(午砲山)으로 부르기도 했다. 전자는 시가지 내에 우뚝 솟아 정월 대보름 달맞이하던 산이라는 뜻이고, 후자는 시계가 널리 보급되지 아니하였던 일제강점기 점심시간을 알리는 대포를 설치해 놓은 곳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바른 이름은 해발 55미터의 연구산(連龜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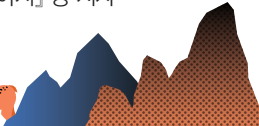
1425년(세종 7) 경상도 관찰사 하연(河演) 등이 엮은 『경상도지리지』의 기록은 이렇다.



2003년 11월 19일 굴삭기를 동원해 돌거북을 바로 놓는 장면

〈약력〉 **이정웅**

전 대구광역시 녹지과장, (사)대구생명의숲 이사장, 달구벌얼찾는모임 대표, 팔거역사문화연구회 회장,
『대구수목원』, 『푸른 대구 이야기』, 『대구·경북의 명목을 찾아서』 등 저자



“대구에 연구산이 있는데 돌로 거북을 만들어 산등성이에 머리를 남쪽으로, 꼬리를 북쪽으로 묻어 맥(脈)을 이은 까닭으로 이를 연(連), 거북 구(龜) 자를 써서 연구산(連龜山)이라 한다.”

라고 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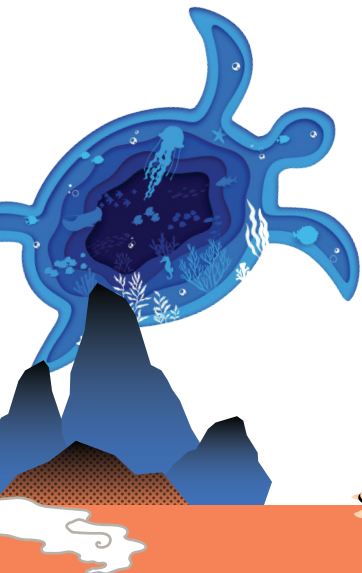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 대구군 편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진산(鎭山)은 연구산(連龜山)이다. 속담에 전하기를, 돌로 거북(石龜)을 만들어서 산등성이에 간직하여,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북쪽으로 꼬리를 두게 하여 산기(山氣)를 통하게 한 까닭으로, 연구산이라고 이른다.”고 하였다.

또한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지맥(地脈)”을, 조선 후기에 간행된 『대구읍지』에도 역시 돌거북을 묻어 “지맥(地脈)”을 이어 연구산이라 한다고 했다.

이런 지리서(地理書)와 읍지(邑誌)의 간단한 기록들로 인해, 어떤 사람은 앞산과 팔공산으로 이어지는 달구벌의 맥(?)이 금호강으로 인하여 끊어진 것을 돌로 거북을 만들어 묻고,

변영의 상징인 알을 낳는 꼬리를 시가지 쪽으로 배치하여 대구가 자손만대에 번영하도록 맥을 이은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가지의 남쪽 앞산(옛 이름은 성불산, 成佛山)이 불꽃 형상을 하고 있어 불을 제압하는 물에 사는 거북을 돌로 만들어 묻어 장차 있을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후손들이 보호되도록 비보(裨補)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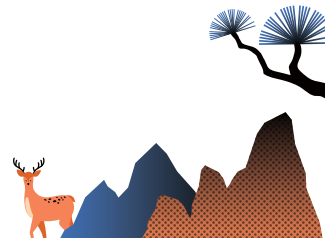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풍수설과 달리 청동기시대의 유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934년 일본학자는 이 돌거북을 현재 대구역 뒤편에 있는 칠성바위와 더불어 청동기시대의 무덤 고인돌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돌 거북은 기원전 10세기경에 만들어졌으니 3,000여 년 전에 대구에 살던 선주민(先住民)들이 후대 사람들을 위해 화재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방을 해 놓은 성물(聖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초기 대구가 배출한 문신(文臣)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노래한 대구 십영(十詠) 중에서 제3 영으로 “구수춘은(龜岫春雲)” 즉 “거북봉우리의 봄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연구산은 은은하여 금오산과 흡사한 데	龜岑隱隱似鰲岑
구름 무심히 나오는 듯 해도 또한 뜻이 있으니	雲出無心亦有心
대지의 생물들 바야흐로 바라는 바 있는데	大地生靈方有望
아무런 뜻 없이 단비를 내려 줄 수 있으랴	可能無意作甘霖

또 이 사가(四佳)의 시에 차운(次韻,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따서 지은 시)한 대구 판관(判官, 조선 후기 대구시장)을 역임한 일화(一和) 최현달(崔賢達, 1867~1942)의 시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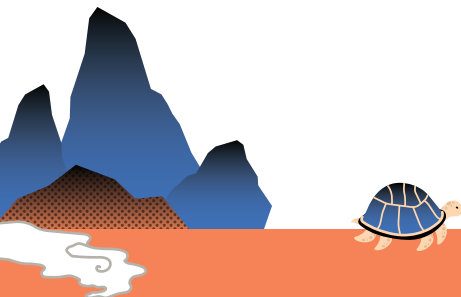


봄 구름 한 조각 영긴 거북 봉
만물을 적셔 줄 뜻을 품었네
맑게 갠 날씨도 좋더라마는
이따금 비를 내림 더 고맙더군

春雲一抹是龜岑
龜與雲含澤物心
占得韶光晴亦好
時來況復作甘霖

뿐만 아니라, 산업화 이전 즉 토속신앙이 우리 생활을 지배할 때 이곳에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즉,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곳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무병장수와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서낭당 혹은 성황당(城隍堂)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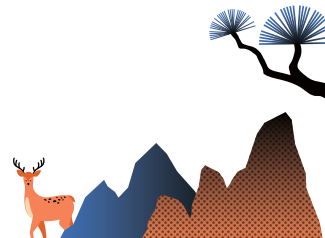
특히, 현재 북구 연암산에 있는 서침(徐沈)·서거정(徐居正)·서성(徐淸)·서해(徐海)·서사원(徐思遠) 등을 기리는 구암서원도 1665년(현종 6) 이곳에 세워졌었다. 그중에서 “서침은 호가 구계(龜溪)로 세종 때 달성(현, 달성공원)에 살았는데 그곳이 천연 요새로 성을 쌓을 만하다고 하여 다른 땅으로 옮겨가도록 하고 그 보상책을 논의하도록 명하였다.





읍지(邑誌) 등과 같이 머리를 남으로 꼬리를 북으로 바로 놓은 연구산 돌거북의 현재 모습

공은 사양하고 보상을 받지 않고 고을의 백성들이 납부하는 환곡(還穀, 식량이 부족한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해 주고, 가을에 회수하던 구휼 제도)의 이자를 다섯 되씩 줄여주도록 청하였다. 임금이 그 뜻을 의롭게 여겨 허락하고 특별히 남산의 밋 역참 터와 연신지(蓮信池)·신지(新池)를 하사하였다(출처, 대구읍지).” 즉 오늘날 달성공원을 나라에 헌납한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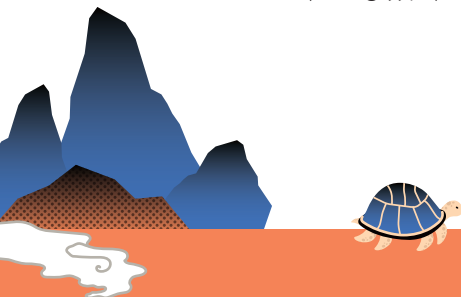
또한, 이곳에는 조선 시대 얼음을 저장하는 석빙고(石氷庫)도 있었다. 이런 깊은 뜻으로 조상이 만들어 놓은 이 돌거북이 문화재로 지정되기는커녕 자료마다 해석이 달라 선조들이 물려준 귀중한 문화유산을 홀대하고 있어 안타깝다. 대표적인 사례가 “거북바위(龜)”를 두고 “자라바위(鰲)”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산 이름도 “연구산(連龜山)”이고, 시의 제목에서도 “구수(龜岫)”라고 하고 실제로 돌의 윗부분 즉 등에 해당하는 부분의 무늬도 거북 문양이고 생긴 모습도 거북 형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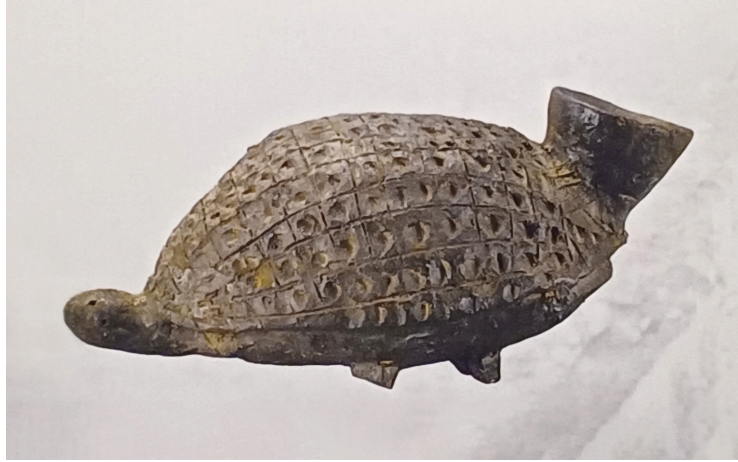
그런데도 자라라고 낮춰 부르는 사람이 있다. 자라와 거북은 사는 곳이 물과 바다로 각기 다르고, 상징성도 다르다. 즉 거북은 장수를 의미하는 십장생(十長生)에 포함되지만 자라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인동의 가스 폭발 사고와 지하철 중앙로역 방화 사건으로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을 때 전국의 내로라 하는 풍수사로부터 선조들이 마련해 준 비방(祕方) -돌로 거북을 만들어 머리를 남쪽으로 꼬리를 북쪽으로 묻어 놓은 것-을 대구시민이 소홀히 해서 일어난 참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즉 일제가 학교를 지으면서 돌거북(龜巖)의 머리를 동쪽으로 꼬리를 서쪽으로 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일어난 참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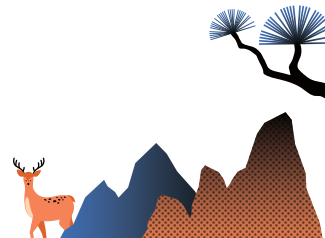
2003년 11월 19일 마침내 필자가 대표였던 “달구벌 열 찾는 모임”에서 풍수지리학자 영남대학교 김기선 교수의 자문과 대아알미늄(주) 이영석 사장의 경비지원, 대구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박성철 회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래 위치대로 바로 놓았다.





달성공원에서 출토된 거북 모양의 토기

이후 영험(?)이 되살아나서 그런지 대구에 이렇다 할 큰 화재나 사고가 없었다. 또 다른 일화는 대구시 소방본부가 팔공산에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짓고 이 돌거북을 그곳으로 옮겨 놓으려고 의견을 물어왔을 때 반대했더니 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설치했고, 사고가 났던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도로를 정비하면서 중앙네거리 동북부 지하상가 출입문 부근에 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설치했다. 대구의 본향이라는 달성공원 발굴조사에서도 거북형 토기가 발굴되어 선조들의 거북에 대해 남다른 애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여러 문헌의 기록과 출토 유물에서 보듯이 거북은 충분히 대구의 상징 동물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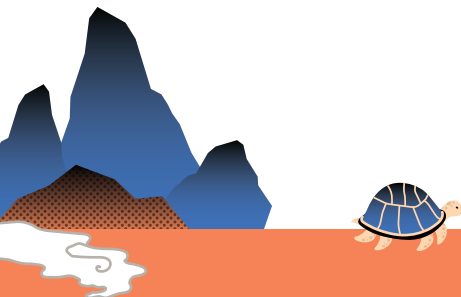


그러나 2011년 사상 가장 성대한 대회로 치렀다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스코트가 대구와 무관한 삽살개였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향토 역사에 밝은 전문가가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생각된다. 다시 한번 대구의 수호신(?)이자 맥(脈)인 이 돌거북을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서울시의 상징물이 해태, 강원도가 반달곰이듯이 대구의 상징 동물로 거북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한발 더 나아가 오랜 논란 끝에 새로 두류동에 짓는 대구시 신청사는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는 만큼 청사 광장에 거북을 형상화한 큰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하고 이왕이면 달성과 군위 2개 군과 중구 등 7개 기초단체를 아우르는 9마리로 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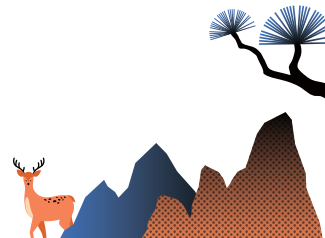
신라 천 년과 고려 오백 년, 조선 초기 세종조 군(郡)으로 승격할 때까지 대구는 최하 말단기관이었던 현(縣) 즉 오늘날 면(面)에 불과했다.

21세기 235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도시로 발전하고 우리나라 최고 지방행정 기관인 광역시로 성장한 것은 선조들이 일부러 돌로 거북을 만들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남북이 끊어진 맥(脈)을 이어 놓아 활기차게 흐르게 한 배려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연구산은 대구의 성소(聖所)이자 돌로 만든 거북 즉 구암(龜巖)은 대구의 수호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연구산의 가치는 일제(日帝)도 알았다.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하여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여에 걸쳐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이때 대지, 전답은 물론 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지번을 부여하고, 경계(境界)와 면적을 확정했다. 즉 오늘날 도시계획이나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없어서 안 될 지적도(地籍圖)를 작성했다.

그런데 대구는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4년 전인 1906년에 연구산 구암(龜巖)을 ‘대구토지측량원점’ 즉 기준점으로 정하고 대구, 경북의 수만 필지의 토지를 측량했다. 이를 보면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李舜臣)이 유영(留營) 즉 머물면서 지휘할 본영(本營) 즉 총 지휘부를 대구에 두려고 한 것처럼 그들로서는 대구가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원전(?) 달구벌을 개척한 우리 선조들이 연구산으로 성소로 가꾼 의미가 20세기 초 침략자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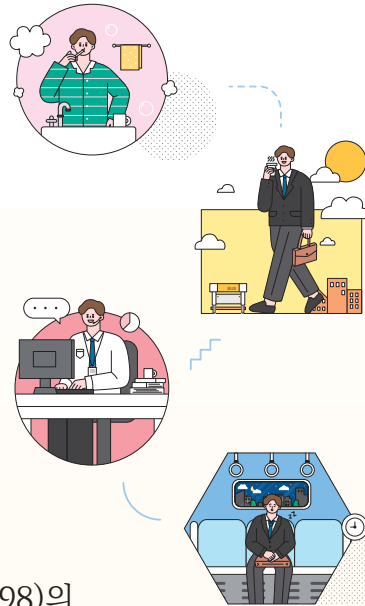
무대 밖으로 걸어 나간다는 것

영화 『트루먼 쇼』와 2·28민주운동



황규진 (영화평론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삶이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익숙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해진 길을 따라 하루를 보낸다. 너무 오래 반복된 일상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 된다. 우리는 대개 그 질서를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영화 『트루먼 쇼』(The Truman Show, 1998)의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짐 캐리 분)도 마찬가지다. 그는 평범한 보험회사 직원이고, 평범한 집에 살며, 평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의 삶은 안정적이고 밝으며 언뜻 보기에는

〈약력〉 황규진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재직, 전 LG전자(주) 본사 TV사업부 해외마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2025 KNU 문화다양성 영화추천사 부문 『플로리다 프로젝트』 수상

이상적인 미국 중산층의 표본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화는 시작부터 어딘가 묘한 불편함을 남긴다. 사람들의 미소는 지나치게 친절하고, 도시의 풍경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깨끗하며, 모든 일상이 정확하게 반복된다. 관객은 이미 알고 있다. 트루먼이 사는 세계가 거대한 세트장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정작 트루먼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거대한 사건이 벌어질 때가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균열들이 등장할 때이다. 하늘에서 갑자기 조명 하나가 떨어지고, 라디오에서는 그의 이동 경로가 생중계되며, 사람들은 어딘가 어색하게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상하다’는 감각이 조금씩 쌓여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트루먼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 생각해 보면 인간 사회의 변화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거대한 혁명이나 민주주의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라는 질문. “원래 그렇다”는 설명만으로는 더 이상 납득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바로 그때 자신이 서 있는 세계를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트루먼의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에 24시간 생중계되는 모습〉





1960년 2월 대구에서 일어난 2·28민주운동 역시 그런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야당 유세 참석을 막기 위해 학생들을 일요일에도 등교시키려 했다. 학교는 정치 권력의 통제 아래 있었고, 학생들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권위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나 선택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학생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왜 학생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왜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없는가. 왜 침묵만 강요되는가. 그것은 거창한 이념의 언어라기보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위화감에 가까웠을 것이다. 어쩌면 학생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다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영화 『트루먼 쇼』와 대구의 2·28민주운동은 묘하게 닮아있다. 두 이야기 모두 ‘거대한 체제’보다 먼저 ‘개인의 감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트루먼은 어느 날 갑자기 혁명가가 되지 않는다. 그는 처음부터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려는 인물도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이 결국 거대한 진실을 향한 걸음으로 이어진다.

『트루먼 쇼』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독특한 설정 때문만은 아니다.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설계해 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화가 개봉한 1998년에는 이러한 질문이 다소 철학적인 상상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이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이 질문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그러나 그 정보들은 중립적으로 우리 앞에 놓이지 않는다. 플랫폼은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한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누군가가 골라놓은 정보 속에서 선택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곧 독재나 억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루먼 쇼』가 보여준 것처럼 인간은 때때로 자신이 보고 있는 세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존재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선거, 헌법, 제도 같은 정치적 단어들로 설명한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인지도 모른다. 익숙한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함을 인지할 수 있는 힘 말이다. 민주주의는 거대한 구호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위화감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도 살아 움직인다.



〈트루먼의 아내와 이웃들 - 사실 이들은 모두 프로그램을 위해 섭외된 배우들이다〉

특히 2·28민주운동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단순히 특정 정권에 대한 저항 사건만이 아니다. 한국 현대사 속에서 학생들이 처음으로 집단적인 방식으로 “이상하다”고 말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대구라는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실제로 2·28민주운동은 그 자체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 대구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움직임은 곧 대전, 마산,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3·15부정선거와 마산의거를 거치며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마침내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2·28민주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큰 변화는 언제나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변화의 순간마다 늘 학생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3·1운동에도 학생들이 있었고, 4·19혁명에도 학생들이 있었으며, 이후의 민주화운동 과정에도 젊은 세대는 언제나 중심에 있었다. 왜 그럴까. 아마도 학생이라는 존재는 아직 세계에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른들은 종종 현실에 적응하고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 “왜?”라는 질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은 한국 현대사에서 묘한 상징성을 지닌다. 원래 교복은 통제와 규율의 상징이다. 교복의 영어 단어인 uniform이 말해주듯 교복은 모두를 같은 모습으로 만듦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역사 속에서 교복은 저항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거리로 나온 학생들의 교복은 순응의 옷이면서 동시에 질문의 옷이었다. 그것은 체제 속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체제를 흔드는 상징이었다.

〈진실과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세트장 탈출을 감행하는 트루먼〉



영화 속 트루먼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처럼 살아간다. 밝게 웃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해진 일상을 충실히 반복한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인물이 세계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영화는 가장 강한 힘을 얻는다. 왜냐하면 변화는 언제나 체제 밖의 사람이 아니라 체제 안의 평범한 사람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오래도록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트루먼은 거대한 바다를 건너 마침내 세트장의 벽 끝에 도달한다. 그리고 벽에 숨겨진 출구 문을 발견한다. 제작자는 그에게 말한다. “밖의 세상도 별다를 것 없다”고. 익숙한 세계 안에 머무르는 편이 안전하다고 설득한다. 실제로 그렇다. 무대 안은 비록 가짜이지만 안정적이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고,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하며, 위험도 통제된다. 하지만 트루먼은 결국 문을 열고 스스로 밖으로 걸어 나간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탈출의 성공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진실하지 않은 안정’보다 ‘불확실한 자유’를 선택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민주주의의 본질과도 닮아 있다. 민주주의는 늘 불편하고 복잡하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갈등도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무대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세계를 원한다. 1960년 대구의 학생들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거대한 영웅이 아니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느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감각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다. 역사는 바로 그런 순간에 움직인다. 거대한 사상보다 먼저,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 하나가 사람을 움직인다.



〈마침내 세트장의 끝에 도달해 계단을 올라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트루먼〉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우리 역시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생각 없이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유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화 『트루먼 쇼』가 개봉한 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 그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2·28민주운동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며 다시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언제나 거창한 영웅이기보다 가장 먼저 균열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이상한데?”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꾸었다. 영화 속 트루먼이 무대의 출구를 향해 걸어 나갔듯이 그들 역시 주어진 현실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걸어 나갔다. 어쩌면 민주주의란 결국 거대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계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는 작은 용기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2·28민주운동은 그러한 용기가 역사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창작오페라 2.28〉 관람 후기

추운 날씨가 여전히 매섭던 2026년 1월 16일, 서울 동숭로 아르코 예술극장대극장에서 창작오페라 〈2.28〉을 공연했다. 오페라 〈2.28〉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올해의 창작산실’에 선정된 작품이다. 무대공연은 구미오페라단이 중심이 되고 대구경북예술가들이 작곡, 대본, 각색, 연출을 맡았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악가 11명이 펼치는 무대였다. 2.28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일요일 등교에

항의하며 벌인 대한민국 최초 민주화운동이다.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는 구호로 독재와 불의에 항거한 2.28의 외침은 3.15 마산의거, 4.19혁명 그리고 마침내 4.26 이승만 대통령하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 큰 흐름을 만들어냈다.





윤 중 국 (자유기고가)

2.28민주운동은 일요일 강제 등교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는 대구 시민정신의 표출이었다.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국민들의 삶이 무너진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절박했다. 3.15선거를 앞두고 야당 부통령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내려진 일요일 등교라는 정권의 음모를 읽어 낸 고등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편 2.28민주운동은 2018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28민주운동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인 상생·통합의 민주주의와 시민 공동체를 위한 정신적 자산으로 계승·발전 되어야 한다.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계속 따라다닌다.

첫 번째는 2026년 오늘의 고등학생들은 현시대 상황에 대해 어떤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고등학생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상생.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가? 공연은 긴장감 있게 흘러가고, 공연이 깊어질수록 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사색과 되새김은 점점 더 깊어진다. 오페라 <2.28>은, 단지 1960년 그때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일요일에 등교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권력은 어디까지 개인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확장된다. 학생들의 판단은 외부의 지시나 선동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비롯되었다. 이 점에서 대구 고등학생들의 2.28학생운동은 집단행동이면서 동시에 ‘판단하는 개인’의 자유의사가 분출된 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확대되었고, 정보는 넘쳐난다. 그러나 개인의 판단은 점점 더 외부와 집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볼지 결정하고, 여론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무엇을 생각해야하는지 암묵적으로 규정한다. ‘좋아요’와 ‘조회수’는 판단의 기준처럼 작동한다. 개인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이미 형성된 흐름에 편승하기 쉽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보여준 것, 그것은 바로 ‘판단하는 개인’의 힘이었다. 그들은 “왜 우리는 일요일에 등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주어진 상황을 의심했고, 그 의심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묻고 답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판단하는 개인의 회복’이다.

‘판단하는 개인’이란 단순히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동시에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는 질문한다.

‘왜 이것이 당연한가, 왜 이 선택이 옳다고 여겨지는가?’

이러한 질문은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그 불편함이 개인을 깨어있게 만든다.

시대정신으로서의 ‘판단하는 개인’은 외부의 압력이나 소음 속에서도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다. 그는 정보의 양에 압도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지도, 무조건 거부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판단하는가’를 끝까지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 태도이다.

오페라 속 학생들이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러한 태도이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했고, 그 상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판단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겼다. ‘용기’ 이전에 ‘판단’이 있었다. 판단이 있었기에 용기가 생겨났고, 행동이 가능했다.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는 말처럼, 행동 앞에는 언제나 ‘생각’ 혹은 ‘판단하는 개인’이 있다.



공연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 울려 퍼지는 합창은 단순한 승리의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질문의 지속을 의미한다. 무대 위의 학생들은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질문은 관객의 자리로 옮겨 와, 공연이 끝난 뒤에도 내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196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판단하는 개인’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형식은 존재하지만, 그 내용을 채우는 힘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필요한 것은 투쟁보다 먼저 판단하는 개인이 하는 ‘질문의 회복’이다.

나는 지금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을 외부와 집단에 맡기고 있는가.





2026년의 우리는 1960년 당시의 시대상, 사회상과는 너무 다른, 더 뜨겁고 다루기 쉽지 않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와 평행선을 달리는 두 정치집단 간의 기세 싸움으로 소용돌이친다. 글로벌한 경제 시스템에서 국제질서는 지금까지의 기준이 무너지고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다. 예측 불가능 시대, 일촉즉발의 위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시대를 이겨내고 실패하지 않는 ‘일상’과 ‘역사’를 만들기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은 ‘질문하는 힘’이고 ‘판단하는 개인의 회복’이다.

공연이 남긴 가장 큰 성과는 감동이 아니라 각성에 있다.

감동은 소비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각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각성의 중심에는 언제나 ‘질문’이 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학생들이 그러했듯, 2026년의 우리 역시 질문을 해야한다.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나갈 때, 비로소 ‘판단하는 개인은 회복’된다.

노래는 끝났지만, 판단은 이제 시작이다. 

내 인생의 저녁



수필가 허창옥

나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나이를 소재로 쓴 글이 서너 편이나 된다. 「마흔의 봄」, 「썬일곱 살」, 「10년 전의 나는(67세)」 등이다. 그 나이 때의 심상을 내비친 글들이다. 나이가 제목이거나 소재가 아닌 글들에도 ‘이 나이에’나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심심찮게 끼어 있다. 나이를 자주 들먹인 까닭을 구태여 말하자면 썬넛에 돌아가신 엄마보다 오래 살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나와 동생은 막막했다.

어쨌거나 자고 일어났더니 일흔이 되었다. 정초에 생일잔치를 했다. 아이 셋이 의논하여 만든 자리에 우리 부부, 그렇게 다섯 명이 조금 비싼 밥을 먹었다. 꽃다발을 안았고 선물과 금일봉을 받았다. 뭐,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 일흔이 되었다. 이제 뭘 하나.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별다를 게 없는데,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는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나는 ‘웬만큼’보다 더 나이를 많이 먹었고 생각해보면 머리 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런 터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따위의 그다지 쓸모없는 생각에 한동안 파묻혔다.

소설 『남아있는 나날』의 스티븐슨을 생각한다. 달링턴 홀(대저택)의 완벽한 집사로 거의 일생을 보낸 스티븐슨은 옛새 동안의 휴가를 허락받는다. 일이 우선이어서 떠나보냈던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먼 길을 떠난다. 긴 그리움에 짧은 만남이었다. 스티븐슨은 쓸쓸하고 허망했다. 저물녘 우연히 벤치에 함께 앉게 된 노신사가 말했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요, 당신은 하루 일을 끝냈어요.” 아, 다행히도 스티븐슨에게는 그리고 나에게도 저녁이 남아있는 것이다.

하루를 살았고 지금은 저녁이다. 저녁은 가장 좋은 때라고 노신사가 스티븐슨에게 말했다. 저녁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너무 고민하지 말자. 그냥 지금처럼 하루하루 살면 될 터이다, 그리 생각하다가도 무슨 열망 같은 것이 내 속에 있어 불쑥불쑥 고개를 든다. 스물세 살부터 지금까지 일만 했다. 이제 유유자적 살고 싶다. 마음먹어지면

시외버스를 타고 동해로 가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으면 한다.

저물녘까지 있다가 가까운 곳에 방을 빌려 하룻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어도 좋겠다. 아니면 어느 늦은 가을날 팔공산 들머리 은행나무 노란 길을 해질녘까지 걷고 또 걷고 싶다. 어이쿠! 헛소리다. 혼자 갈 용기도 힘도 없다.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얼마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냈다. 그게 지금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다. “위령회慰靈會에 입회하고 싶어.” 딸아이에게 말했더니 “엄마 안돼요. 엄마 그 일 못해요.” 딱 부러지게 말했다. 딸아이는 그 일이 죽음과 연관된 것이어서 늙은 엄마가 거길 가는 걸 저어하는 모양이다. 위령회란 성당의 단체명인데 장례가 있으면 회원들이 가서 연도(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전문가들은 염습과 입관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며 장지에도 함께 가는 일들을 한다. 그 단체에 들고 싶은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가륙한 게

아니다. 우선은 받아주는 연령대라는 것이다. 다른 단체(성가대, 어머니회 등,) 가입할 나이를 초월한 지 오래되었다. 위령회도 60세 이상이니 지금 들어가도 고령에 속할지도 모른다.

말했듯이 일에만 매여 있느라고 대개 나이별로 입회할 수 있는 어떤 단체에도 가입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거나 청소하는 일까지 아무 것도 못하고 살아왔다. 오직 나를 위해서만, 그리고 내 가족만 챙기면서 일생을 살았다. 이제 죽은 영혼을 위한 일에 가서 기도문이라도 읽고 싶다. 이 또한 내 마음 편하자고 하려는 것인지 내 속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아무튼 장례식장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콧등에 걸린 안경을 밀어 올리며 죽은 영혼을 위해 연도를 하면, 마음을 다해 기도문을 읽으면 내 인생의 저녁이 참 평화로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내게 ‘남아있는 나날’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 시간이 남아 있지. 그 시간에 하고 싶은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저녁노을이나 바라보면서 만년을 보낼 수도 있겠지. 

〈약력〉 허창옥

수필집 《말로 다 할 수 있다면》, 《길》, 《먼 곳 또는 섬》, 《새》 외
산문집 《국화꽃 피다》, 《그날부터》 외, 수필선집 《세월》, 《선달그믐밤》
한국수필문학상, 김규련수필문학상, 대구문학상, 약사문학상 수상
대구수필가협회 회장(역)

발바닥

땅심 하나로 버텨온 바닥
거북등처럼 짹짹 갈라져 있다
가뭄이 깊다



김옥진

흙의 말 믿고 살아온 논바닥
물이었다가
불이었다가
바람이었을

말발굽처럼 박힌 굳은살
그 속에
길의 이력이 쌓여 있다

이제는 사그라든 바닥

가장 낮은 이름

가시가 깊이 박혀도
소리 없이

깊이 들여다보면
엄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발자국이 겹겹이 박혀 있다

주인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온 세월

먼 길 돌아온 끝

허연 재만
소복하다

〈약력〉 김 옥 진

2003년 시문학 등단, 시집 『참, 조용한 혁명』 『수상한 시국』 『어느 노송의 주례 말씀』 외 다수, 아르코 발간지원(2020)과 발표지원(2023) 및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창작지원금(2026) 수혜, 박종화문학상 김명배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달성지부 회장 역임

1. 2·28민주운동 헌법전문 수록 관련 원로 자문 간담회 개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4월 22일 원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2·28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2·28민주운동 원로들이 참석해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계승 방안,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2·28민주운동이 1960년 대구에서 시작되어 마산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며, 자유·민주·정의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원로들은 2·28민주운동이 대한민국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으로서 독재와 부정에 맞서 민주주의의 물꼬를 튼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가치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2·28민주운동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로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 2·28민주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성명서 〉

-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 2·28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라 -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역사는 1960년 대구의 2.28민주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하여 대구의 학생들이 떨치고 일어났던 그 외침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었다.

이 거룩한 불씨는 대구를 넘어 마산의 3·15의거로 이어졌고
마침내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적 이정표인 4·19혁명으로 타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헌 논의에서
2·28민주운동이 헌법전문에 빠져있는 현실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던 2·28의 외침을 온전히 담아낼 때
비로소 대한민국 헌법은 진정한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2·28 없는 민주운동의 역사란 있을 수 없다.
2·28민주운동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28정신은 대구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2·28민주운동을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것을 오직 역사적 사실과 민주적
가치에 근거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4. 23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원 일동

한편, 이날 간담회와 함께 역사자료 기증식도 진행되었다. 기증식에서는 고(故) 신동근 교수(영남이공대학교)가 소장하였던 「제34대 대통령·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 선거벽보」 1점이 사업회에 기증됐다. 해당 자료는 배우자인 정경숙 소장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2·28민주운동 관련 역사 보존과 연구 활용에 뜻을 함께하며 전달되었다.



「제34대 대통령·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 선거벽보」 기증

2. 대구시장 후보 초청 2·28정책 간담회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대구시장 후보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2·28민주운동의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4월 28일 추경호 후보, 4월 30일 김부겸 후보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공유하고 향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2·28민주운동이 1960년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외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2·28민주운동의 정신이 지역의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오늘날에도 계승되어야 할 가치임을 설명하였다.



4월 28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2·28정책간담회



4월 30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2·28정책간담회

기념사업회는 주요 현안으로 2·28민주운동 헌법 전문 수록, 2·28민주운동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개·보수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2·28의 의미를 기억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특히 2·28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서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2·28민주운동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지역사회가 함께 2·28의 정신을 기리고 미래세대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기념·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28민주운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3. 2·28정신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잇다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참석

3월 15일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곽대훈 회장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참석은 2·28민주운동에서 3·15의거,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2·28정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3·15의거 기념식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참석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곽대훈 회장, 백재호 사무처장,

김교정 홍보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된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2·28민주운동에서 시작된 민주 시민정신이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진 역사적 흐름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4·19혁명 기념식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5월 18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대훈 회장, 여행용 원로자문회의 의장, 백재호 사무처장, 김교정 홍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김정기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등 대구시 대표단 20명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기념식은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1980년 5월 광주가 보여준 연대와 희생의 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5·18민주화운동기념식

대구시와 광주시는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매년 양 도시의 민주화 기념식에 상호 참석하며 영호남 화합과 연대의 가치를 이어오고 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역시 이번 참석을 통해 2·28민주운동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정신의 역사적 계승 의미를 되새기며 민주주의 가치 확산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했다.

4. 대외협력위원회 위촉식

3월 25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2·28대외협력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위촉식은 2·28민주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념사업회의 대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위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을 비롯해 여행웅 2·28원로자문회의 의장, 백승대·진덕수 부회장, 김교정 2·28홍보위원장이 참석하여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외협력위원회 위촉식

곽대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28민주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더욱 폭넓게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외협력위원회가 기념사업회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형곤 대외협력위원장은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념사업회의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4월 22일에 대외협력위원회 추가위촉식이 있었다.

2·28대외협력위원회는 앞으로 대외 협력 사업과 홍보 활동, 유관기관 연계 사업 등을 통해 2·28민주운동 정신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외협력위원회 추가 위촉식

5. 2·28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2·28대학 제14기 성황리 마무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평생교육원 「2·28대학」 제14기가 2026년 3월 11일(수)부터 6월 10일(수)까지 총 12주 과정으로 성황리에 운영을 마무리한다. 2·28대학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2·28민주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제14기 과정에서는 김용일 전 계명대학교 부총장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강의를 시작으로, 하세헌 경북대학교 교수의 「지방분권을 왜 해야 하는가?」, 박동휘 육군3사관학교 교수의 「AI시대 안보와 우리의 대응」, 장우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의 「정치와 민주주의」, 권업 DGIST 석좌교수의 「과학기술과 미래사회」 등 정치·역사·문화·안보·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강의를 진행되었다.



2·28대학 14기 국립대구박물관 견학

이어 김철수 계명대학교 석좌교수, 허종 충남대학교 교수, 김정숙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박순국 전 매일신문 편집위원, 배한철 매일경제 기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강연을 선보이며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마지막 과정으로 오동욱 대구정책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의 「대구 문화의 발자취」 강의가 6월 10일 진행되어 뜻깊게 마무리될 예정이며, 강의 종료 후에는 총 70명의 수료생과 함께하는 수료식을 개최해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민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28청년아카데미 제9기 운영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의 청년 교육 프로그램인 「2·28청년아카데미」 제9기가 7월까지 운영된다. ‘청년, 시대를 묻고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과정은 역사·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2·28청년아카데미 제9기 개강식이 진행되었다.

강의와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시대를 읽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제9기 청년아카데미는 최용호 2·28민주운동 주역(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개강 특강을 시작으로, 권하나 석세스이미지컨설팅 대표, 추현호 (주)과타드림랩 대표, 김영수 영남대학교 교수, 모종린 연세대학교 교수, 엄기홍 경북대학교 교수, 권정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공저자,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황찰리 재즈아티스트,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 원장의 강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2·28정신과 선비의 길을 걷다」 현장탐방과 문화예술 공연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강의실 밖에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28청년아카데미 제9기는 지역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되었으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시대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성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6. 2.28민주운동 발자취- 민주주의를 향한 용기, 국가유공자로 기록되다

국가보훈부는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4·19혁명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0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과거사 진실 규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으며, 2·28민주운동 참여자 7명도 새롭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새롭게 포상을 받은 2·28민주운동 참여자는 권기진(경북고 42회), 김영갑(경북고 42회), 민태식(대구고 1회), 김영대(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 10회), 박재철(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 10회), 신구자(경북여고 32회, 故), 박명철(대구공업고 32회) 등 7명이다.

이어 5월 7일에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김영갑·권기진 원로가 2·28기념탑을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배에는 곽대훈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을 비롯해 홍종흠·정시식 원로, 청년위원, 대외협력위원, 홍보위원 등 10여 명이 함께 참석해 민주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7. 2·28민주도서관,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2·28민주운동기념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부모·자녀 간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난 3월 28일, 도서관 회관 4층 문화강좌실에서는 안도현 작가 초청 강연회가 개최됐다. 열두 번째 신작 시집 《쓸데없이 눈부신 게 세상에는 있어요》 출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강연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조기 마감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안도현 작가는 신작 시집의 핵심 정서와 창작 이야기를 전하며 참석자들과 시 구절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역 주민 60여 명이 참여해 문학으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



또한 지난 5월 13일에는 김혜경 강사를 초청해 「AI 시대, 사고력과 문해력을 키우는 하브루타 질문 독서법」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질문 중심 독서와 대화 교육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자녀의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실천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도서관은 「나와 닮은 그림책」,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코딩 교실」, 「하브루타 부모코칭」 등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독서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8. 2·28민주운동 발자취 따라, 2·28위원회 교육·현장탐방 실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5월 30일, 대외협력위원회·청년위원회·홍보위원회 위원 및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2·28기념사업회 위원회 교육 및 현장탐방」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위원들의 2·28민주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원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교육과 현장 탐방을 연계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먼저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백재호 사무처장의 강의를 통해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전시관 견학을 통해 당시 기록물과 주요 전시물을 직접 살펴보며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오후에는 2·28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2·28자유광장,故이대우 집터, 2·28기념중앙공원, 반월당 2·28민주운동 집결지 등 주요 유적지를 방문하는 현장 답사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민주운동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2·28정신을 체감하고, 위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위원들의 역사 인식 제고와 조직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9.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방문 잇따라

지난 4월과 5월,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에는 지역 단체와 기관의 역사 현장 방문이 이어졌다. 4월 5일에는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대구지회와 다사중·침산중·용산중·성산중 및 봉사단 소속 샤프론·프론티어·가족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28민주운동 기념탑 참배 및 자유광장 정화활동」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기념탑 참배를 통해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광장 일대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며 민주정신 계승과 시민의식을 되새겼다.



이어 5월 14일에는 제50보병사단에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전시관을 방문해 해설과 함께 사진자료·기록물·전시 콘텐츠를 관람하며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5월 17일에는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대구지회 소속 청소년·가족 봉사단 50여 명이 전시관 견학과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시관 해설과 영상 시청을 통해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배우고, 명덕역 인근 기념 표지석 방문과 주변 정화활동을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을 높였다.



바로잡습니다

조해정*

2·28연구원 객원연구원 / (사)산학연구원 기업사연구소장

《2·28 햇불》 2026 봄호(제26권 1호 통권 101호)에 게재된 『실록 2·28』 그 기록의 의미」(48쪽) 내용 중 일부에 착오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해당 글에서 김윤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 대구일보 2월 29일자에 게재된 것으로 표기하여, 이를 1960년 3월 1일자로 정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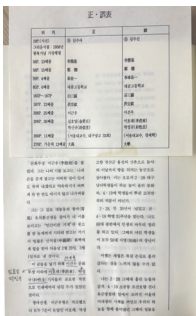
1. 오류 및 정정

위치	잘못 표기	정정
《2·28 햇불》 2026 봄호_제26권 1호 통권 101호, 48쪽 6째줄	대구일보 2월 29일자	대구일보 3월 1일자

2. 정정 근거 자료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 자료집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텍스트화 최종보고서, 2023, 88쪽.
- 김윤식,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 2·28 대구학생데모를 보고」, 대구일보, 1960. 03. 01.



慶北中高 第42回 同窓會, 『第42回 卒業30周年 記念文集』, 「김윤식_2·28, 고이 흘러간 세월을 돌이켜보며」, 1991, 208쪽, 23~24째줄.

- * 아울러 참고자료로 활용한 『第42回 卒業30周年 記念文集』의 일부 오기가 별도 표시되어 있어 이 지면을 빌어 다시 올립니다.
- 208쪽 25째줄 이진우 → 이근우
- 208쪽 26째줄 이호래(李浩來) → 김호일(金晷日)
박성규(朴性圭) → 박신규(朴信圭)

* 조해정

『실록 2·28』 집필자인 조해정은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만나 자서전 집필과 구술사 작업을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 및 생활사 연구에 전착해 왔다. 아울러 지역의 역사와 공간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기록과 저술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2016년 「2·28민주운동 아카이브사업」에 참여하면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관련 연구와 기록 사업에 꾸준히 동행해 왔다. 『22인의 경험과 기억』, 『달구언덕 2·28』, 『실록 2·28』 등을 기획·집필하며 2·28민주운동의 기억과 가치를 기록·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2·28민주운동기념 도서관 이용안내

1. 2·28민주운동기념회관 3층 (대구명덕초등학교 옆)

※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

구분	일반 자료실	유아·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평일 (화~금)	09:00~19:00		09:00~18:00
주말 (토~일)	09:00~17:00		

2. 대출안내

- 대출시, 본인도서회원증(실물 또는 모바일 대출증)으로 대출가능
- 자관내 1인 최대 10권, 15일간 대출가능 (대구 공공도서관 총 30권)
- 다자녀회원은 1인 20권, 20일 대출가능
- 관외 대출중인 도서에 한해 1인 2권 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가능
(문자 통지 후 3일 이내에 미대출시 자동으로 예약취소)



3. 유의사항

- 타관 및 부록자료 반납은 데스크에서만 가능 (무인기기 반납불가)
- 무인 기기 대출 및 반납시 확인증 반드시 확인
- 도서 반납 후 2일 이후에 대출 가능 (연장불가)
- 자료실 내 음식물은 반입 금지
- 정기간행물은 자료실 내 열람만 가능
- ☎ 053-257-2280

2·28법률·세무상담실 무료 운영 안내

1.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

- 법률 : 최덕수 변호사 (매주 화·금요일 14시~17시)
- 세무 : 서성욱 세무사 (매주 금요일 10시~12시)

2. 장소 및 문의

- 장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2·28법률·세무상담실
- ☎ 053-217-0228



발행인 광대훈

편집인 백재호

편집위원 김상진, 김약수, 이은경, 조두진, 하청호

발행처 사단법인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228.or.kr

인쇄 2026년 6월

발행 2026년 6월

인쇄처 성심인쇄

- 『2·28햇불』은 홈페이지(www.228.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2·28햇불』은 대구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2·28햇불』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제작하여 회원들과 전국의 공공기관, 학교에 증정합니다. 2·28의 학생들이 외쳤던 '민주'와 '정의'의 뜻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볼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 『2·28햇불』 구독 중단 요청 ☎ 053-247-2285



사단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법인 |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